

해외 건설경기 전망 및 설비건설업계 진출 현황

12월 6일 현재 해외건설 수주가 100억불을 넘어섰다.

올들어 해외건설 수주가 활발해지는 현상은 건설업계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한 청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 경제는 땅값과 집값의 급격한 상승으로 한바탕 흥역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응해 정부는 부동산에 관한 초강경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때문에 부동산경기는 얼어붙기 시작했고 건설경기가 급격히 냉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정부는 SOC(사회간접자본)투자보다는 복지부문 투자를 늘려 건설업체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건설산업의 비중을 감안할 때 건설업계가 침체의 늪으로 빠져 버리면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 밖에 없고 그런 만큼 우리 경제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다시 좌절의 쓴 맛을 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중동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해외건설경기가 봄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설비건설업계도 건설경기 침체 타개책의 일환으로 해외공사에 눈을 돌려 볼 만하다.

다음은 해외건설경기 현황과 이에 따른 우리 회원사들의 해외건설 수주현황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건설교통부가 밝힌 수주액을 보면 전년 동기대비 90%가 증가했고, 특히 중동지역이 62억불로 62%를 차지해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또한 중소형 수주가 많은 아시아 지역에서도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신흥시장인 아프리카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아프리카 주요 시장인 나이지리아에서의 대규모 오일·가스 시추설비 등 아프리카 수주액이 총 수주액의 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현대중공업, SK건설, 현대건설, 대우조선해양,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등 주요 플랜트 업체들의 수출실적이 대부분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가하는 등 호조

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수주증가세가 국제 유가상승에 따라 중동 국가의 세입이 증가하면서 신규 발주물량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플랜트산업협회는 국내 주요업체들이 기술집약형인 고부가가치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집중함으로써 선진기업의 하청수주, 노동집약형 저가 플랜트 수주에 그쳤던 지난 2000년 이전과 달리 양적·질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 해외건설 호황인 지역의 전망을 살펴보자.

□ 중동지역

국내 건설업체들의 주시장이 될 수 있는 중동은 지금 미래를 향해 발버둥을 치고 있다. 유가상승으로 재정이 넉넉해진 산유국의 증설과 개·보수 경쟁이 늘어나 오일·가스 공사 뿐만 아니라 그동안 미뤄왔던 발전소나 항만 등 대형 인프라사업이 쏟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10년 동안의 발주액이 1조달러가 넘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감안하면 중동에서 건설업체들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찾을 것으로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1. 두바이(아랍에미리트연합)

셰이크 모하메드 왕세자가 이끌고 있는 이 나라는 각국의 전문가 2,000명으로 싱크탱크를 구축해 300년 앞을 내다보는 대장정을 이미 시작했고 이를 위한 건설투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유가의 급등으로 밀려들어오는 오일달러를 미래를 위한 투자로 연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경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활황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주변국가들은 물론 중국이나 인도, 유럽의 관련업체들은 두바이 건설시장 선점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변국들은 건설근로자에서부터 건설자재 공급, 협력업체 진출, 주택 부동산 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유럽 등에서는 저마다 디벨로퍼, 주택·부동산관

련 금융업 진출에 이르기까지 오일달러를 잡기 위해 분주하다.

두바이는 또한 지금 세계의 관광메카로 건설하기 위해 분주하다.

‘더 월드 프로젝트’로 불리는 바다 위의 인공섬, 세계에서 유일한 해저호텔, 사막의 디즈니랜드와 실내 스키장, 유일한 바다 위의 7성급 호텔 등은 바로 두바이를 꿈의 나라로 건설하려는 의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발하면서 야심 찬 이같은 초대형 개발사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면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

더 월드 프로젝트, 팜 아일랜드 프로젝트 등 두바이는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바다 위를 매립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부동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대형 건설업체들은 그동안 주로 발전소나 항만공사 플랜트로 중동시장을 공략해 왔다. 그런 만큼 이런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우리 업체의 경쟁력은 세계가 인정한다.

특히 우리 건설업체들의 플랜트 시공능력이 향상돼 입찰에서 한결 유리해졌고 업체간 과당 출혈경쟁 역시 줄어들어 앞으로 중동에서 건설사들이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반을 다진 셈이다.

올해 들어서도 두바이 수전전력청이 발주한 6억9,600만 달러의 발전소 공사를 현대건설이 수주했고, GS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카타르에서 6억6,000만달러의 초대형

원유·가스처리 공사를 수주했다. SK건설은 쿠웨이트에서 단일공사로 사상 최대로 꼽히는 12억달러짜리 플랜트공사를 따낸 것으로 밝혀졌다.

2. 이란

이란에서 가장 많은 사업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문은 풍부한 석유, 가스 및 이를 활용한 석



△ 두바이에서 추진 중인 ‘The World Project’ 바다 위의 인공섬으로 해저호텔, 디즈니랜드, 실내스키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유화학 그리고 발전, 철강 등이다.

토목부문의 경우 중소 민간 건설업자 중심으로 다수의 소규모 프로젝트에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고유가에 따른 석유 수출 수입이 증가하면서 획득한 막대한 자금이 산업 각 부문에 지원되면서 건설경기의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석유화학 프로젝트

전세계 석유화학 제품이 600여개 종류인데 반해 현재 이란에서는 60개(0.5%) 정도만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란 정부는 동 비율을 5~10%까지 늘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석유화학 부문에서 다수의 프로젝트가 발주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다수의 프로젝트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석유화학 공사(NPC)는 대형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데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분간 민간기업들은 소규모 프로젝트에서 많은 참여 기회를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기업의 경우NPC가 EP에서 EPC 계약으로 방침을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화 요구를 충족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NPC와 석유부는 점진적으로 현지 업체들이 대형 프로젝트의 입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기업들과 외국기업들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와 같은 현상이 석유화학 중심의 NPC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타 발주처에도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 빌딩 프로젝트

대형 빌딩 프로젝트는 그다지 많이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조사작업이 수행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중 가장 큰 관심으로 모으고 있는 것은 테헤란 주택지대의 Vanak Square에서 이란 Medaber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1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하여 61층 규모로 건설할 이 빌딩은 테헤란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테헤란시 건설담당 공무원에 의하면 시의 건물 가운데

약 70%가 개보수 또는 재건이 시급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등 건물의 개보수도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교통 프로젝트

테헤란-Shomal 신고속도로 프로젝트의 준비는 순조로운 편이지만 발주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기대된다.

테헤란과 북부 Gilan, Mazandaran, Golestan 지역간 알보르즈 산맥에 10km의 터널을 뚫는 공사도 주목을 모으고 있다.

항구 프로젝트의 추진도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셰르항 확장 프로젝트와 함께 만다르 압바스지역에서 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Shahid Rajaei항 확장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다. 이란항구·조선청(Iran Ports & Shipping Organization)은 이란 선사들이 선박 수를 계속 늘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다수의 항구 건설 및 확장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타

Karaj, Hamadan, Yazd의 하수 프로젝트에서 다수의 파이프망 부설 및 하수처리장이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테헤란시에는 20,000MW 규모의 민간 발전소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제철소 프로젝트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미개발 지역이 개발되면서 수반되는 도로 등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도 활발히 발주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이라크

△ 재건사업 추진 전망

이라크의 재건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약속한 자금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미의회가 승인한 186억달러의 이라크재건기금 중 약 17억 달러만이 집행된 실정이다. 향후 추진될 재

건사업의 규모 및 내역 역시 이 기금의 지원 여부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불확실한 정치, 경제, 안전상황을 고려할 때 당분간은 사업기회가 그다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건, 교육 및 수자원 부문에서는 사업 발주가 적게나마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라크는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당분간은 이익보다 위험이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는 여전히 유망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 주요 프로젝트

교통 인프라는 효율적인 재건지원 사업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미국의 파슨스 브링커호프는 최근에 바그다드-바스라간 철도 재건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항구 역시 재건사업의 한 축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BOT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 움카슬항 개발사업의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다.

4. 요르단

정부가 인프라 현대화 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관광 및 부동산 부문에 많은 자금이 몰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르단의 2005년도 대형 프로젝트 건설시장은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다.

△ 주요 프로젝트

우선적으로 추진할 인프라 프로젝트는 몇몇 하수처리장과 상수도망을 개발 또는 개선하는 것이다. 특히 북부 Jerash, Mefraq, Irbid, Aljoun 지역에서 추진될 송수망 건설 프로젝트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철도망을 현대화하거나 확장하는 프로젝트는 대부분 계획단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부는 10억달러로 추정되는 철도 프로젝트의 전략적 조사를 위해 6개 컨설팅 회사로 구성된 쇼트리스트를 발표하였다. 동 프로젝트는 수

도 암만과 주변국의 주요 도시인 다마스쿠스, 바그다드, 리야드, 카이로 등지를 연결하는 남-북, 동-서 철도 건설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암만의 알-압달리 지역은 현재 진행중인 10억 달러 규모의 10개년 도시재건 프로젝트의 변경을 모색하고 있다. 동사업의 마스터 플랜에는 55층 빌딩, 요르단 아메리카대학, 4개 고층빌딩, 후세인기념도서관, 상업 및 주거용 건물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바레인 소재 Gulf Finance House도 2004년 말 암만에서 10억달러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Royal Metropolis 개발사업으로 명명된 이 프로젝트는 22만㎡의 부지에 35층 규모의 사무실 빌딩과 고급 호텔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Districts로 명명된 2단계 사업은 제조부문을 조성하는 것이다.

자르카에서는 8억3천만 달러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6단계로 수행될 이 사업은 2천 헥타르의 부지에 주거용 도시와 관련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아카바특별경제지구청이 추진하는 60억 달러 규모의 투자사업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이 사업은 430만㎡의 Ayla Oasis 부지조성 사업, 270만㎡의 Tala만(灣) 리조트 및 아카바아메리카대학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5. 시리아

시리아 정부는 오랜기간 지연돼 온 프로젝트의 입찰에 외국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시리아에서는 다수의 프로젝트의 발주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주요 프로젝트

General Co. for Grain Silos는 총 2억 달러 규모의 10개 곡물 사일로 턴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Qattineh에서 추진하는 4억 달러 규모의 열병합 발전소(750MW) 프로젝트의 입찰이 2005년 말경 실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General Establishment for Civil Aviation은 Al-Mazzeah 공항 건물을 현대화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Al-Raqqa와 Hasakeh 신공항 건설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6. 리비아

현재 리비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주택이다. 정부는 2014년까지 20만~25만 호의 주택이 건설돼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간 물량은 35,000~40,000호 정도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리비아 건설산업은 이 정도의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리비아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2004년도에 주택부문에 15억 8,700만 달러가 책정되었지만 전혀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증가하는 도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주택건설 사업에 외국 건설업자들을 유인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리비아에 진출한지 오래된 외국기업들은 주택분야가 참여할만한 가치가 없다고 보고 있다. 리비아 정부가 기술력이 낮고 저가의 자재를 사용하는 저가의 아파트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기업들은 주로 자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고가의 부동산 개발 및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있다.

외국인이 건축부문에서 관심을 갖고있는 투자 우선 분야 중 하나는 트리폴리 지역의 고급호텔 건설사업이다. 트리폴리에는 괜찮은 호텔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들어서는 리비아 정부가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다수의 호텔 립을 확보하고자 하는 점도 이 분야에서의 사업기회가 많을 것으로 점쳐지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현재 트리폴리에서는 여러 개의 다목적 개발사업이 계획되고 있다. Dubai Reality International이 개발중인 대형 프로젝트도 이 중 하나이다. New Tripoli로 명명된 이 프로젝트는 트리폴리 북부의 200만㎡의 부지에 대규모 주거·상업 및 레저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서부 가스 프로젝트의 해양활동 지원을 위한 기지로 활용될 1억 달러 규모의 Melita 신항 건설 프로젝트도 이태리

의 ENI가 리비아 석유공사와 합작 개발하는 45억 달러 규모의 서부사막 가스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 프로젝트는 해저를 통해 이태리에 연간 10조㎡의 가스를 공급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대수로공사청 또한 여러 건의 대규모 사업을 발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수로공사청은 현재 약 1천km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총 공사비가 10억 달러가 넘는 3건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1년 내 남동부 Al-Kufra 대수층 3단계 개발사업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7. 이집트

△ 제약공장

2004년 말 영국 Astra Zeneca Egypt사는 6 October시에 추진하는 3,700만 이집트파운드(590만 달러) 규모의 제약공장 프로젝트를 이집트 Orascom Construction Industries(OCI)사에 발주하였다. OCI는 현재 국영 담배제조 회사인 Eastern Tobacco Co.가 6 October시에 생산시설을 집중하기 위해 추진하는 1억 4,400만 달러 규모의 단지 건설 및 생산시설 능력 확장 등 2건의 프로젝트도 수행하고 있다.

영국의 화이자사도 1,800만 달러 규모의 카이로시 근처에 위치한 Al-Maza 생산시설 확장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기타 영국의 글라스스미스클라인을 포함한 기업들도 생산시설 확장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시멘트 공장

건설시장에 긍정적인 또 다른 조짐은 시멘트 생산을 위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년 1월에 이집트 시멘트회사는 1억 6천만 달러 상당의 채권 발행을 마무리하였다.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기존 채무의 상환과 지체되고 있는 Ainel-Sokhna 공장 프로젝트에 투입할 예정이다.

△ 발전

이집트전력회사는 10개년 시설능력 확장 프로그램에 따라 2건의 발전소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은행은 이집트전력회사가 카이로 남부 El-Tebbine 지역에 650MW 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신청한 2억 5천만달러의 차관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기존 발전소 부지에서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의 총 공사비는 3억 5천만 달러로 추정된다.

기타 Talkhad와 Kureimat에서도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이다.

□ 발칸반도

중동만큼 시장이 크지는 않지만 발칸반도 역시 국내 건설업체들이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유럽의 화약고'로 불릴 만큼 분쟁이 끊이지 않는 비극의 무대였지만 1990년대 들어 소련이 붕괴되고 동구권이 몰락하면서 제각기 독립을 선언, 건설수요가 그만큼 창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칸반도는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등 6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이 지역 국가들은 아직까지 농산물과 가공품, 광산물을 주로 수출하는 등 후진국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존재하는 각 지역의 고립적인 경향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의 건설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최근들어서는 각국이 공업화에도 본격적으로 나서 중공업 부문도 중시하기 시작했다.

발칸 6국에 한국 건설업체들이 직접 진출, 수주에 나서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유럽연합(EU)의 공동목표는 유럽의 공동번영이고 못사는 나라를 없게 해서 분쟁을 없애자는 것이다.

그런데 발칸 6국 중 슬로베니아는 이미 EU에 가입했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도 가입했다.

EU의 역할론을 내세우며 발칸반도에 유럽의 건설업체들이 선점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 건설업체

들이 발칸 6국에서 자리를 잡는 일은 그만큼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런 점을 지적하며 발칸 6국 진출에 있어 그리스와 터키의 역할론을 제기한다.

발칸반도의 대부분은 그리스 북부에 있는 마케도니아 출신인 알렉산더 대왕 때 그의 정치적 영역 아래 있었다. 그 후 로마, 비잔틴, 투르크 혹은 해안 연안지대에 있는 베네치아 등 외부세력의 지배를 받았으며 근대에 이르러서는 오스트리아, 러시아, 영국, 이탈리아 등 여러 세력의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왔다. 19세기 러시아가 터키세력을 몰리친 무렵부터는 그리스, 세르비아, 불가리아 등 민족국가로 형성됐다.

그런 만큼 발칸반도에 속해 있는 나라들은 같은 발칸지역이면서 가장 잘사는 그리스를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발칸반도 공략에서 그리스의 역할론이 강조되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 발칸지역 최남단에 위치한 같은 발칸국으로서 유일하게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그리스의 중요성은 여기서 비롯된다.

마크 제이 시오나스(Mark J. Siounas) 그리스 건설협회 사무총장은 "발칸 6국의 번영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그리스가 쥐고 있다"며 "그리스의 건설업체와 한국의 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법 등을 통해 발칸반도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터키의 역할론도 주목할 만하다. 이 나라 역시 한국 건설업체의 진출이 거의 없다. 대형 건설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관공서가 요구하는 서류가 238가지에 이를 정도로 규제가 많고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 지진 등의 이유로 그동안 고층빌딩 건설이 적었고, 특히 두바이처럼 신도시 개념의 프로젝트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터키의 건설시장에도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고층아파트로 이뤄지는 복합주거타운이 건설되기 시작했고 중산층을 겨냥한 대규모 호화빌라촌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이를 추진하는 주역은 터키 최대의 건설회사인 아가우구루이다. 이 회사는 이미 이스탄불에서 20개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끝냈거나 완공단계에 있고, 올 들어서는 이스탄불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도시의 개발사업에 착수했다.

이 회사에서 마케팅을 담당하는 에이텐 알파 부장은 “이스탄불에서도 고층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졌다”며 “신도시에는 40층짜리 고층 아파트 19개 동을 비롯해 39층, 29층짜리 등으로 구성돼 총 3,650가구의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도시 내에는 올림픽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수영장만 6개가 들어선다.

이 신도시의 규모는 총 100만㎡로 이미 현장에서는 공사가 요란하게 진행 중이며 1·2차 분양을 끝낸 상태다.

후세인 이브라히 아가우구루그룹 회장은 “같은 이슬람권인 중동을 비롯해 발칸지역에 건설기술에서 경쟁력이 있는 한국기업과 컨소시엄 등을 구성해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캄보디아

캄보디아에서의 건설수요는 과연 얼마나 될까? 무한하게 잠재된 건설수요가 현실로 연결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일까? 한국정부나 건설업체들은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 본격적으로 각종 재건 프로젝트가 추진될 경우 일본이나 중국, 유럽의 기업들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 한국의 건설업체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현재까지 캄보디아에 진출한 건설업체는 극동건설이 고작이다. 남부지역의 캄핏사와 드라방 로바우간 32km의 도로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착공 1년이 지났지만 공사 진척이 매우 느려 사실상 공사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캄핏시는 수도인 프놈펜에서 자동차로 3시간 거리에 있다.

캄보디아는 산업화의 시작단계에 있다. 국내 건설업체들이 투자하기에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투자지역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는 것이 현지를 방문한 한국기업인들의 얘기다.

현재 한국 건설업체들이 눈독을 들일 만한 부문은 크게 4가지다. 도로 건설과 수자원 개발, 발전소 건설, 앙코르와트 유적지 복원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이다.

특히 앙코르와트 유적지 보존·복원사업과 관련해 추진되고 있는 부대사업으로 씨엠립 주변 관광단지 개발에는 골프장을 비롯해 리조트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어 건설업체들이 검토해 볼 만 하다.

발전소 건설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전력공급이 수요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대규모 발전소가 재원부족으로 건설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화력발전소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미 국내 일부 업체에서 우선 10만kW짜리 소규모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건설하기 시작해 단계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베트남

급격한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베트남 중에서도 호치민이 우리 건설업체들에 새로운 ‘엘도라도’로 떠오르고 있다.

실질적인 베트남의 경제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호치민은 지자체의 다양한 개발사업 구상과 맞물려 우리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조성사업이 베트남 내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한국형 신도시 개발에 대한 호치민시의 관심도 높다.

실제로 GS건설이 호치민시와 도로건설과 주택사업에 관한 포괄적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도심 남부에 100만평의 나베 신도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대원도 국내 주택업체로는 처음으로 베트남 주택시장에 진출, 지난 1월 호치민 안푸에 405가구를 분양한 바 있고 올해 안에 1차 사업용지와 비슷한 규모로 2차 분양을 계획중이며 빈탕 및 코박 등지에서도 아파트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 설비건설업계 진출 현황

이러한 가운데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사들 중에서 해외로 진출한 업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 활로를 찾기 위한 모색의 일환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해외건설에 눈여겨 볼 만 하다.

다음은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사들의 해외공사 현황이다.

◁ GS건설이 베트남 나베 신도시에 건설 할 예정인 Xi Park Tower

△ 구보공영

위치(나라)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	공사금액	특징	기술 및 인력, 장비수급	기타
리비아	Operation & Maintenance System 공사	2004. 1~ 2005. 11	(주)대우건설	USD 877,216	병원 유지관리 보수공사	국내 관리자 5% 제3국인 (필리핀, 방글라데시) 95% 현지조달	연장계약 가능

△ (주)금이기업

위치(나라)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	공사금액	특징	기술 및 인력, 장비수급	기타
SAKHALIN (러시아)	SAKHALIN-II LNG PLANT PROJECT (P.W.H.T)	2004.12.~ 2007.8	(주)대우건설	USD826,000	동절기 휴무 상태 열처리기술 (P.W.H.T)	기술진 : 본사 인력 파견 일반인력 : 제3국인(태국 등) 장비송출 : 대우건설의 협조 통해 금이기업 장비 반출	고도의 열처리 기술 확보

△ 금화PSC

위치(나라)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	공사금액	특징	기술 및 인력, 장비수급	기타
나이지리아	NIGERIA LNG SIX PROJECT STEEL STRUCTURE & EQUIPMENT ERECTION(including cladding)	2005. 6~ 2007. 5	대우건설	USD 5,250,000	STEEL STRUCTURE & EQUIPMENT INSTALLATION	인력 : 필리핀인 15% 자국인력 15% 현지인 5% 장비 : 대우건설 지원	
러시아	SAKHALIN-II LNG PLANT PROJECT PIPING PREFABRICATION WORKS	2004. 12~ 2006. 12	대우건설	USD 3,960,000	PIPING FABRICATION	인력 : 필리핀인 70% 자국인력 25% 현지인 5% 장비 : 대우건설	



△ 범진기공(주)

위치(나라)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	공사금액	특징	기술 및 인력, 장비수급	기타
예멘	500,000q 배럴 규모의 원유저장탱크 검사 및 개·보수 공사	2003.8~ 2006. 2	CNPY	USD4,680,000	당급	한국인 직원에 제3국인 노무자 기본 장비는 당사 보유분으로 사용하고 중장비는 현지 임대	
Qatar	라스라판 탱크 제작 설치 공사	2005.6~ 2006.8	두산중공업	USD5,570,000		한국인 직원에 제3국인 노무자 기본 장비는 당사 보유분으로 사용하고 중장비는 현지 임대	
이란	사우스파 가스전 개발사업 6,7&8 단계 - 기계설치공사	2004. 12 ~ 2006. 6	TIJD Joint Venture	USD5,971,000		한국인 직원에 제3국인 노무자 기본 장비는 당사 보유분으로 사용하고 중장비는 현지 임대	

△ 백석엔지니어링(주)

위치(나라)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	공사금액	특징	기술 및 인력, 장비수급	기타
이란	South Pars GAS Field Development-Phase6,7&8 Project Mechanical Installation Work(C4-A Package-1&2)	2004. 1 ~ 2005. 1(공사 기간 연장, 진행중)	Joint Venture of TEC/IDRO/JG C/DIC	USD13,824,360			
이란	Pipe Erection Work for "B" Zone Ethane Cracking Plant-9 TH Olefin Assaluyeh	2003. 11 ~ 204. 4 (공기 연장, 공정률 78% 진행중)	ARYA SASOL POLYMER CO., LTD	USD2,997,536			

△ (주)부원이앤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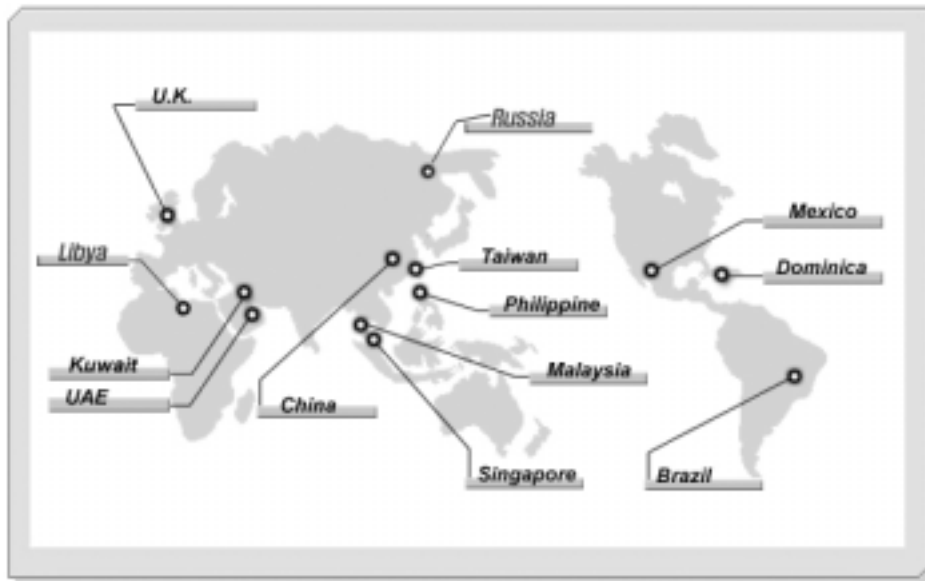
위치(나라)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	공사금액	특징	기술 및 인력, 장비수급	기타
이란	이란사우파스 678 Mechanical Installation (C4-B 패키지)	2004. 9 ~ 2006. 9	Joint Venture 인 TIJD	USD363,000 (381,150,000원)	기계 및 배관 설치공사		
대만	포모사 마이라 오 원유 및 나 프타 저장탱크 공사	2005.4 ~ 2006. 9	대만 포모사	USD2,825,000 (2,966,250,000원)	탱크 설치공사		

△ 삼호건영(주)

위치(나라)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	공사금액	특징	기술 및 인력, 장비수급	기타
중국	HSSL HYNIX PROJECT	2005.11 ~ 2006. 3	현대건설(주)	USD4,681,539			
인디아	DELHI METRO CORRIDOR MC1B PROJCT	2001.3~ 2006. 3	삼성물산	USD11,500,000			

△ (주)성도이엔지

위치(나라)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	공사금액	특징	기술 및 인력, 장비수급	기타
쿠웨이트	KOCRPROJECT		SK건설				
러시아	Train#1 Piping Erection Work(SAKHALIN-II LNG PLANT PROJECT)	2005.4 ~ 2006. 12	대우건설	USD3,382,000	플랜트공사		
러시아	Train#2 Piping Erection Work(SAKHALIN-II LNG PLANT PROJECT)	2005.9 ~ 2007.8	대우건설	USD3,385,000	플랜트공사		
러시아	Underground Piping Work (원공사명 : SAKHALIN-II LNG PLANT PROJECT)	2005. 5 ~ 2005.11	대우건설	USD2,090,000	플랜트공사		
브라질	SMART MODULAR TECHNOLOGIES PACKAGED LINE BRAZIL PROJECT	2005. 9 ~ 2005.11	브라질 SMART 사로부터 원도급	USD2,463,000	반도체 설비 공사		
나이지리아	EPC3 BRT Expansion Project / Pipe Fabrication & Erection Work	2005. 4 ~ 2007.6	대우건설	USD2,780,000	플랜트공사		



△ 석원산업(주)

위치(나라)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	공사금액	특징	기술 및 인력, 장비수급	기타
나이지리아	고니섬 배관설치 공사 6호기	2005. 12 ~ 2007. 5	대우건설	USD 5,470,000			



△ 아이더블유아이(주)

위치(나라)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	공사금액	특징	기술 및 인력, 장비수급	기타
카타르	QP LAB PROJECT	2004.9 ~ 2005.11.	GS건설	\$ 3,800,000 (변경예정)			공사기간 연장 예정
리비아	Benghazi North Comined Cycle Power Plant(기 계설치 및 배관 공사·보온 및 도장공사 포함)	2005. 2. ~ 2006. 10	대우건설	\$ 3,700,000			

△ 옥산기공

위치(나라)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	공사금액	특징	기술 및 인력, 장비수급	기타
Assaluyah, Perisian Gulf, Iran	South Pars Gas Field Development Phase 6,7&8 Project	2004.9 ~ 2006. 9	PETROPARS Ltd. / TIJD	7,260,000,000원			
대만 윤림현	Pomosa Refinery 5PJT Revamping/utility construction work	2005. 3 ~ 2006. 7	삼성건설(주)	5,400,000,000원			

△ 우림플랜트(주)

위치(나라)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	공사금액	특징	기술 및 인력, 장비수급	기타
리비아	NC-41 Mellitah on Shore Plant Project, Piping Work	2003. 10 ~ 2005. 11	현대건설(주)	USD4,185,027		주요 Stuff & Foreman : 한국인 기능인력 : 중국, 필리핀인력 활용 장비 : 원청사 지급	
리비아	NC-41 Mellitah on Shore Plant Project, Structure Erection Work	2003. 8 ~ 2005. 11	현대건설(주)	USD2,714,973		주요 Stuff & Foreman : 한국인 기능인력 : 중국, 필리핀인력 활용 장비 : 원청사 지급	

△ 우림플랜트(주)

위치(나라)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	공사금액	특징	기술 및 인력, 장비수급	기타
리비아	Libyya/Zaeia Combined Cycle Power Plant Project (HRSG Erection Work)	2005. 6 ~ 2006.9	현대건설(주)	USD2,110,000		주요 Stuff & Foreman : 한국인 기능인력 : 중국, 필리핀인력 활용 장비 : 원청사 지급	
이란	EB Plant of 9th Olefin Complex in Bandar Assaluyeh, (Mechanical Work)	2004. 12 ~ 2006. 3	대림건설(주)	USD8,730,000	이란 현지 업체와 J. V Agreement	주요 Stuff & Foreman : 한국인 기능인력 : 중국, 필리핀인력 활용 장비 : 원청사 지급	

△ (주)함창CMS

위치(나라)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	공사금액	특징	기술 및 인력, 장비수급	기타
사우디 아라비아	CGTG(Combustion Gas Turbine & Generator) & HRSG(Heat Recovered Steam Generator)	2005. 1 ~ 2006. 6	현대건설(주)	USD7,800,000	기계배관 설치공사	고급 기술인력 : 본사 직원 기술노무자 : 현지인 및 제3국인 채용 소모공구 및 이동설비 : 한국에서 발송 중장비 : 현지 임대	해외건설 의 원활한 수행 위해 현지 사업 자등록 및 건설면허 취득
바레인	Al-Ezeel Project	2005. 10 ~ 2007.7	두산중공업	USD 4,000,000	열회수장치 공사	고급 기술인력 : 본사 직원 기술노무자 : 현지인 및 제3국인 채용 소모공구 및 이동설비 : 한국에서 발송 중장비 : 현지 임대	해외건설 의 원활한 수행 위해 현지 사업 자등록 및 건설면허 취득



△ (주)함창CMS가 시공중인 사우디아라비아의 CGTG 현장

△ 흥해기술

위치(나라)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	공사금액	특징	기술 및 인력, 장비수급	기타
태국	GSP-1 OSBL 기계 배관공사	2004. 8 ~ 2005. 11	삼성 엔지니어링	USD 2,600,000	플랜트공사	현지수급	